

통신3사 신년화두 ‘디지털전환’… 글로벌 플레이어 포부

신년사 통해 등 성장기반 마련 강조

SKT 유영상 대표

“AI컴퍼니 도약·전환 실행원년”

KT 구현모 대표

“디지털 전략 확장… 3차원적 성장”

LGU+ 황현식 대표

“AI·데이터 기반 U+3.0 성공 총력”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SK텔레콤 등 통신 3사 CEO의 올해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 ‘글로벌로 성장 기반 마련’으로 요약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전 구성원에 보낸 이메일 신년사에서 “2023년을 AI(인공지능) 컴퍼니로의 도약과 전환을 하는 비전(VISION) 실행의 원년”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 사업적으로는 넥스트 인터

넷 후보로 거론되는 대화형 AI, 메타버스, 웹3 등이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움츠러 있기 보다는 올 한해를 ‘도약과 전환’의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특히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 비전 실천과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이닷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글로벌 AI 서비스 사업자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유무선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등 기존 사업을 AI로 재정의하며, 타 산업의 AI 전환(AIX)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빅 테크 수준의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구현모 KT 대표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성장과 변화를 이어갈 2023년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안전과 안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 대표는 또 지난 3년간 KT의 성장을 이끌어온 ‘디지털(DIGICO)’ 전략을 보다 확장해 다른 산업과의 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3차원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자며, ‘이익을 보장하는 성장’, ‘미래에 인정받는 성장’을 강조했다.

구 대표는 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KT그룹이 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를 리딩한다는 것은 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한다”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을 통해 디지털 시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 실천하자”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2일 영상으로 임직원에게 전달한 2023년 신년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빠어난 고객경험’이 U+3.0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가입·개통·CS 등 온라인 고객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루틴·구독 서비스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B2B에서는 SOHO·SME·모빌리티 등을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U+3.0변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는 AI·데이터 기술의 내재화와 유연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변화의 방향이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 설정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뜻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신년사

“‘백년 한화’ 향해 새로운 도전 해운분야 등 신사업 키울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위기 속에서도 ‘백년 한화’를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 회장은 2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년사를 배포했다.

김 회장은 우선 지난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올해 역성장 전망까지 나온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한화는 역사를 통해 위기가 더 큰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왔으며, 움츠러들기보다 내일을 꿈꾸며 ‘백년 한화’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직 한화만 할 수 있고, 한화가 해야만 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기업과 국가 안보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상황, 방산과 에너지 사업이 반드시 자립해야 하는 사업이 됐으며 지속적으로 만들고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서



도 국가를 대표하는 사업을 키운다는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메이저 사업으로 키우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주력 사업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항공우주와 그린에너지, 디지털 금융 등 미래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직문화 재창조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신사업 확장과 사업 재편 등 미래 지향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필요한 시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비합리적 관행이나 관성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웅 기자

“CFE 등 ‘비전 2030’ 본격 추진 8년간 20조 이상 투자할 것”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비전 2030’을 선포하며 취임 2년차를 시작했다.

LS그룹은 2일 안양 LS타워 대강당에서 ‘2023년도 LS그룹 신년하례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유튜브 채널 LSETV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신년하례와 비전선포식을 이어가며 미래 성장 계획과 주요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

구 회장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앞으로 8년간 그룹이 달성할 목표와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은 ‘CFE(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다. 전세계가 30년간 공통적으로 ‘넷제로’를 과제로 할 것이라며, 이 핵심인 CFE 시대로의 대전환이 LS에는 다시 없을 성장 기회라고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자산 50조 원 글로벌 시장 선도 그룹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현재보다 규모를 2배 키우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8년간 20조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신성장 사업도 제시했다.▲CFE 발전 사업(풍력, 태양광, ESS) ▲수소 가치사슬 사업(인프라, 저장, 유통) ▲송/배전 솔루션 사업(해저, 초고압 케이블) ▲CFE 배전 사업(가상발전소, 전력수요관리, RE100)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전력 인프라 최적 관리) ▲통신 솔루션 사업(통신 케이블) 등 여섯 가지다.

구 회장은 “제가 LS Futurist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 그룹의 미래 도약을 위한 굳건한 기반이 되겠다”며, “이 플랫폼을 발판으로 CFE시대를 여는 비전 2030의 1일차를 힘차게 열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어스온-아줄리

글로벌 CCS 사업 발굴 맞손

SK어스온과 영국 아줄리가 호주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SK어스온과 아줄리는 지난달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이 양사 간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양사는 이미 CCS 관련 법률 시스템이 구축된 호주 및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CCS 사업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줄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독립적인 CCS 전문 기업으로 호주, 영국, 유럽 대륙 및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CCS 사업 기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노정용 SK어스온 그린센터장은 “SK어스온은 CCS와 연계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민간기업이 되겠다는 비전 아래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아줄리와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kova@

효성그룹, ‘팀 빅토리아’ 가동… 베트남 미래 먹거리 사업 키운다

효성티앤씨 베트남 동나이 법인 산하 신사업 전담 예정… 미래역량 강화

효성그룹이 베트남 사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이 새로운 글로벌 거점으로 주목받는 상황,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 역량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베트남 동나이 법인 산하에 ‘팀 빅토리아’ 조직을 가동했다.

효성티앤씨 동나이 법인은 스파텍스와 나이론 원사, PTMG 제조 및 판매를 맡아왔으며,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효성 스파텍스 생산 전초기지로 잘 알려져있다.

팀 빅토리아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베트남 신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성은 베트남 미래 먹거리 사업을 크게 키운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군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효성은 베트남에 중국에 이은 두번째

규모 생산 기지를 운영하는 등 투자를 지속해온 바 있다. 2007년 처음 베트남 법인을 세운 이후 35억달러(한화 약 4조원)를 투자하며 현지 외자 기업 중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베트남은 효성그룹에서 중요한 해외 거점 국가”라며 “중국 사업도 여러 약재로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건조기·워시타워 15종 출시

LG전자는 LG 트롬 건조기와 트롬 워시타워를 새로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브제컬렉션 라인업을 포함해 건조기 7종과 워시타워 8종이다.

건조용량이 21kg으로 더 커졌다. 가정용 건조기 중에서는 최대. 워시타워도 21kg 건조기에 세탁기 25kg으로 국내 가정용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로 만들었다

/김재웅 기자